



진흥고 출신 선수들 호랑이 사냥꾼 됐네!

NC 나성범·김성욱, 삼성 강명구·정형식·두산 양의지
 고향팀 KIA만 만나면 결승타에 끝내기타 매서운 활약

진흥고발 바람이 KIA의 순위싸움에 제동을 걸었다. 전반기에는 동성고 바람이 거셴다. KIA의 초반 순위 싸움에 힘을 보탠 양현종·김주형(이상 KIA)과 문선재(LG), 노진혁·임창민(이상 NC), 문우람(넥센)의 '깜짝 활약'이 눈에 띄었다. 동성고 후배들도 황금사자기 4강 진출과 함께 13년 만의 전국체전 출전권을 획득하는 등 활약을 이었다.

최근에는 진흥고의 활약이 매섭다. 특히 고향팀을 겨냥한 이들의 움직임은 KIA의 순위싸움에 제동을 걸었다. KIA의 4강 이상 진출은 후반기 두 번째 일정이었던 NC전에서 보였다. 신생팀을 상대로 승수를 더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KIA는 두 경기에서 연속 역전패를 당했다.

7월26일 모창민(광주일고)의 끝내기 안타에 이어 27일 경기에서는 올 시즌 프로야구의 핫 이슈인 진흥고 출신 나성범의 방망이가 뜨거웠다.

나성범은 이날 나지연의 연타석 홈런을 잠재워버린 역전 투런포를 날리며 고향팀 KIA를 울렸다. KIA전에서 가장 높은 0.333의 타율을 보이고 있는 나성범은 지난 8일 맞대결에서는 8회 동점 홈런을 쏘아올리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12회 연장 승부 끝에 KIA는 다시 NC에게 4-5 역전패를 당했다.

공교롭게도 이 끝내기 안타의 주인공 역시 진흥고 출신이다. 12회 1사 1·2루 찬스에서 대타로 나선 김성욱은 프로 데뷔 첫 안타로 짜릿한 끝내기의 주역이 됐다. 자신의 첫 안타이자 첫 타점 그리고 NC의 창단 첫 연장 끝내기 안타였다.

김성욱은 진흥고 3학년이었던 지난 2011년 KIA 3군과의 연습경기에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던 김진우를 상대로 무등경기장 담장을 넘기며 입소문이 났던 유망주다.

앞선 삼성전 싹쓸이 3연패에도 진흥고 출신의 강명구와 정형식이 버티고 있었다. 삼성과의 후반기 첫 경기인 만큼 KIA는 김진우와 윤석민을 전면에 내세우고 설욕전을 준비했다. 하지만 7월30일 경기에서 김진우가 2-2로 맞선 4회, 5실점으로 무너져내리면서 삼성전 연패가 계속됐다.

4회 대주자 강명구가 아닌 타자 강명구가 있었다. 채태인과 박석민의 연속안타로 만들어진 무사 1·2루에서 강명구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결승타의 주인공이 됐다. 동료의 부상 속에 전문 대주자라는 이름 대신 7번 타자라는 이름으로 고향에서 귀중한 타점을 올린 것이다. 다음 날에는 후배 정형식이 눈에 띄었다. 1회부터 윤석민을 상대로 좌익수 키를 넘기는 3루타를 치고 나가며 득점에 성공한 정형식은 13-4로 크게 앞선 9회에는 고향에서 마수걸이 홈런을 날렸다.

대표적인 KIA 킬러로 꼽히는 두산의 안방마님 양희지도 진흥고를 대표하는 선수다. 15일 경기전까지 KIA를 상대로 3개의 홈런을 포함 10개의 안타를 때려내며 0.400의 타율로 9타점을 올렸다. 올 시즌 6개의 홈런 중 절반인 3개가 무등경기장 담장을 넘기는 등 고향에서 펼칠 날았다.

선배들의 활약 속에 후배들은 대령경기 2연패를 위한 도전을 하고 있다.

지난해 진흥고 마운드를 책임졌던 허영민이 득점한 에이스로 다시 또 우승을 위해 앞장선다. 진흥고는 17일 오후 6시 목동구장에서 장충고와 대회 8강 티켓을 다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성욱

나성범

정형식

강명구



15일 러시아 모스크바 루즈니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14회 모스크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여자 800미터 예선에서 참가 선수들이 트랙을 질주하고 있다. /연황뉴스

볼트 200m서 '19초 벽' 깰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오늘 오후 '번개 레이스' 재개

'단거리 황제' 우사인 볼트(27·자메이카)가 모스크바 하늘에 다시 한 번 천둥번개를 울고 온다. 이번엔 자신의 뒷발이나 마찬가지로 이번 주종목 200m다.

볼트는 16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3시35분 러시아 모스크바의 루즈니키 스타디움에

서 열리는 남자 200m 1회전에서 '번개의 레이스'를 재개한다. 앞서 볼트는 12일 열린 남자 100m 결승에서 굵은 빗줄기를 뚫고 9초7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끊어 통산 두 번째 단거리 3관왕을 향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00m는 볼트 앞에 놓인 가장 어려운 관문이었다. 폭발적인 가속도가 최대 강점인 볼트는 상대적으로 스타트가 약한 탓에 2011 대구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부진출발을 하는 듯 100m에서는 다소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9초77의 기록으로 4년 만에 100m 왕좌를 되찾으면서 마음의 짐을 한결 덜었다.

4년 전 베를린 세계대회에서 세운 세계기록(9초58)을 떠올리던면 9초77은 다소 아쉽

게 느껴지지만, 천둥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달랠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쁜 성적은 아니다. 특히 스타트보다 가속도가 중요한 200m를 남겨둔 볼트가 자신감을 갖기에는 충분하다. 볼트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해상같이 등장한 이래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등 큰 무대에서 한 번도 200m 금메달을 빼앗긴 적이 없다. 올해 고전하면서도 200m에서만큼은 19초73의 최고기록으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 왔다.

변수를 꼽자면 볼트의 몸 상태다. 볼트는 100m 우승을 차지한 뒤 "준결승전을 마치고 양쪽 다리에 빠근함을 느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연황뉴스

추신수 시즌 6번째 결장

베이커 감독 휴식 권유

미국프로야구 신시내티 레즈의 공격 첨병 추신수(31)가 감독의 배려로 15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 결장했다. 추신수는 이날 크리스 헤이스에게 중견수를 맡기고 벤치를 지켰다. 시즌 6번째 결장이다.

더스티 베이커 신시내티 감독은 MLB.com과의 인터뷰에서 "20연전을 치르는 중에 중견수이자 톱타자로 중책을 떠맡은 추신수가 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추신수가 손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신수가 이날만큼은 타격하지 않고 손을 쉬 수 있도록 베이커 감독이 휴식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세계청소년 야구대회 美·쿠바와 한조

이달 30일 대만서 개막

5년 만의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정상탈환을 노리는 한국이 이탈리아와 대회 첫 경기를 갖는다.

국제야구연맹(IBAF)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대만(타이중)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경기일정을 확정·발표했다.

미국·쿠바·콜롬비아·호주·이탈리아 등과 B조에 속한 한국은 오는 30일 오후 12시30분 이탈리아와 대회 첫 대결을 벌인다. 이후 '디펜딩 챔피언' 미국(31일), '대회 최다우승국' 쿠바(9월1일), 콜롬비아(2일) 호주(3일)를 상대한다.

일본은 대만·캐나다·베네수엘라·체코·백시코와 함께 A조에 배정됐다. 예선라운드는 싱글 라운드 로빈(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별 상위 3개팀이 결선라운드에 진출한다. 결선라운드는 크로스 토너먼트 방식이며 이후 예선라운드와 결선라운드 성적을 합산해 종합순위를 산출, 결승전 및 순위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수가 손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추신수가 이날만큼은 타격하지 않고 손을 쉬 수 있도록 베이커 감독이 휴식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추신수는 8월 들어 0.179의 타율에 그치며 고전하고 있지만 14일 컵스와의 연장 11회 무사 만루에서 2타점 적시타를 쳐 6-4 승리를 이끌고 해결사 노릇을 했다. 시즌 타율 0.273을 기록한 추신수는 출루율 0.408로 메이저리그 전체 타자 중 5위를 달리고 있다. /연황뉴스

한국에게는 2008년 이후 5년 만의 우승 도전이다. 2008년 안지홍(KIA·서울고), 허경민(두산·광주일고), 오지환(LG·경기고), 김상수(삼성·경북고), 정수빈(두산·유신고) 등으로 대표팀을 구성한 한국은 캐나다에서 열린 제 24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는 2014 신인 우선 지명 및 1차 지명을 받은 프로야구 예비 스타들이 태극마크를 달고 뛴다.

KIA의 선택을 받은 최현호(창원진곡·유희운(북일고·KT), 박세웅(경북고·KT), 이수민(상원고·삼성), 임지섭(제주고·LG), 한주성(덕수고·두산), 황영국(청주고·한화), 임병욱(덕수고·넥센) 등이 대표팀 활약을 준비하고 있다.

광주일고 내야수 정기훈도 대표팀에 발탁되면서 '야구 명문팀'의 명맥을 이었다. 대표팀 지휘봉은 전후기 왕중왕전(황금사자기·청룡기)을 석권한 덕수고 정윤진 감독이 잡으며 이효근(마산고), 김성용(야탑고), 송민수(장충고) 감독이 코치로 선임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